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8 권 21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77)	봉헌 (217)	성체 (174)	파견 (6)
---------	---------	----------	----------	--------

미사 전례 예절

-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을 때
“이 성수로써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마귀를 쫓아내시며 악한 생각을 없이 하소서”
하고 기도한 후 성당 안으로 들어와 제대를 향하여 경건하게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 제대를 향하여 가운데 통로를 통행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자 중에도 가운데 통로로 다니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중앙 통로는 사제, 수도자, 전례봉사자만 통행하여야 합니다.
제대 앞을 지나고자 할 때에는 정중히 머리 숙여 예를 갖춘 후 통과 하십시오.
- 미사 중에는 가급적 합장을 하십시오.
양손 바닥이 마주 닿게 하고 손끝의 위치는 자기 어깨 높이에 두고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왼손 엄지를 누릅니다.
이때 손끝이 정면이나 바닥을 찌르듯 한 자세는 바르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내 마음을 향한다는 의미로 위로 향하게 합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새 미사예절 지침서 등에서-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5/27	유 요한	이바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로
6/3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로
6/10	이 마틸다	이바로/김유스티나	박다니엘/김바로
6/17	이 그레이스	이요한/김헬레나	박다니엘/김바로

영어독서: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06	\$75	\$150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이 요한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4/28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6/2	손 아놀드/ 손 쟈마
5/5	이 바로/ 이 빅토리아	6/9	이 글라라/ 장 글라라
5/12	김 마론/ 김 헬레나	6/16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5/19	박 바로/ 박 세라피나	6/23	이 요한/ 이 마틸다
5/26	황 가롤로/ 전 제노베파	6/30	유 요한/ 유 마리아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안내: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체조배는 6 월 7 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둘째 주 일요일 오후 7 시

다음 임원회의는 6 월 10 일 오후 7 시에 있겠습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목요일 오후 8 시

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10907 Prairie Stone Pl, Bakersfield, CA 93311

성경공부: 매주 주일미사 후

로마서로 공부를 하고 나눔을 갖습니다.

성경공부를 원하는 분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장소는 친교실 입니다.

소 공동체 모임: (매달 셋째 주일 미사 후)

다음모임은 6 월 17 일 미사 후 있겠습니다.

성모의 밤 행사 에 참석해 주신 형제 자매님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음식을 준비해주신 자매님과 감동적인 편지를 함께 나눠주신 자매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남가주 성령 쇄신 대회 참가 신청 8 월 25,26 일

성령 쇄신 대회 참가신청을 이번 주부터 받습니다.

이번 대회의 참가 비용 절반(50%)을 성당에서 지원합니다.

No refundable reservation fee (개인당 \$20)를 참가 신청 시 미리 내셔야 합니다.

호텔 예약 등 미리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가신청: 구역장님, 재무부장님**

말씀의 이삭

봉사는 모두의 기쁨입니다

-전승환 레오 | 작가-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참 다양한 곳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유아부 때부터 고등부까지 하느님의 사랑만을 받기만 하다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교회를 위해 처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교리교사, 이후 사목부 봉사자로, 최근까지는 서울대교구 청년부 소속으로 교리교사들과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나눠주려 노력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기 전까지 늘 어느 곳에 속해 봉사를 했었기에 봉사의 기쁨을 많이 느껴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봉사를 해오면서도 늘 '나는 신앙인으로서 진정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봉사자라는 타이틀이 좋아서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는 제 모습을 발견한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내 허영심을 봉사라는 예쁜 포장지로 감추고 있었던 건 아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스스로 의도야 어떻든 봉사라는 것을 했으니 난 괜찮다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넘기곤 했습니다.

이십 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더 많이 그런 회의감이 들어, 조심스럽게 존경하는 신부님께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봉사자의 마음이짐으로 죄책감이 든다고. 사람들과의 즐거움을 좇는 제가 부끄럽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신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좇는 사람이 하느님일 수 있다. 네가 즐거워하는 자리가 하느님이 만들어 놓은 자리 일 수가 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일 수 있다. 봉사를 함으로

네가 기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기쁘고 봉사를 느끼는 사람들이 기쁘면 하느님도 기뻐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봉사만 하지 않았던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고 모두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은 자리이니 저는 그저 즐겁게 봉사에 임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지만 지금도 봉사를 함으로써 나만 기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봉사란 상대방도 기쁠 수 있고 함께하는 모두가 기쁨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봉사란 참 아름답고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봉사는 하느님과 함께 기쁨을 찾아 나서는 일입니다. 그러니 모든 이들에게 친절하고 사랑을 주려 노력하면 사랑받는 신앙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사는 행복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봉사가 모두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가 하느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상식 주님의 기도를 바칠 때 팔을 벌리나요?

사제가 팔을 벌려 기도하는 자세는 하느님을 향해있으면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손을 합장한 채 기도하는 것이(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자세지만, 주례 사제가 권하여 다 함께 팔을 벌리고 기도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봅니다. 팔을 벌리는 자세는 옆 사람에게 폐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할 수 있지만, “전례적으로 주님의 기도 때에 손을 잡는 것이 권장사항은 아니다. ... 본당의 날이나 큰 축제일에 예외적으로 할 수 있다”(2015년 춘계 주교회의)고 단서를 붙였습니다.

글_ 「교회상식 속풀이」 | 바로로말 발행